

불미전 매년 개최 · 문광부장관상 신설

6월 20일부터 원서 교부 · 8월 30일 시상 ... 문화재청장상도 추가



2004년 열린 제2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개막식에서 작품을 둘러보는 스님들.

불교미술작가들의 '등용문'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3월 13일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공모요강을 발표했다. 문화부장관 상은 "올해 불미전은 특히 중국산 가짜 한국불교미술품을 선별하기 위해 미완성품을 내도록 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심한 만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에서 이번 불미전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2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위촉식을 마친 조계종 문화부는 20년 가까이 격년제로 운영되던 불미전을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불미전 운영규정 등도 손볼 계획이다. 보다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 상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관련 정부기관 인증을 통해 보다 격상된 불미전의 위상

을 보여주고자 문화관광부장관상과 문화재청장상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상내역도 한층 강화했다. 불미전 출전 초대작가전 등을 정규적으로 해나갈 것도 약속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잠자고 있는 전회 수상작들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작의 영구귀속이 문제가 돼 대작이 출품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보이지 못해 또 다른 불씨를 남기고 있다.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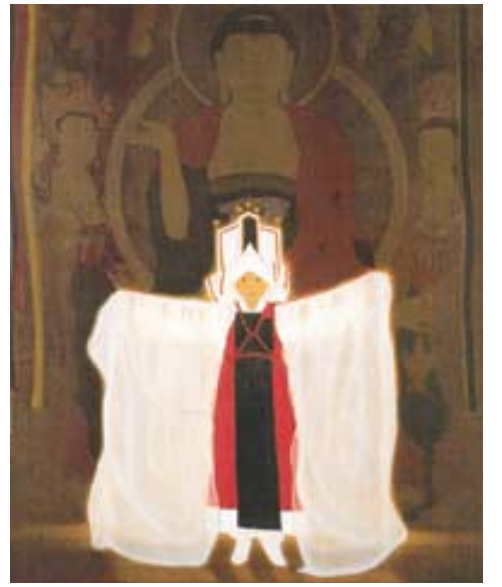
문화부 박종화 문화팀장은 "이번 불미전은 불교미술관련 협회, 학계, 문화재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불교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에는 최소 200점에서 250점 정도의 작품이 공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6월 20일~7월 14일 원서 배부를 하고 18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심사결과 발표는 26일에 하며 시상식은 8월 30일 인사아트센터 내 가나아트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수상작들은 8월 30일~9월 5일 가나아트 갤러리 2·3층에서 전시한다. 제21회 불미전을 이끌어 나갈 운영위원장은 위원

대상 상금도 1200만원으로 인상 ... '국내 2위' 수상작 중앙박물관 전시, 출전 초대작가전 정규화 대상작 영구 귀속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미술가들은 대상작의 영구 귀속이 부담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 미술 작품과 달리 불교미술작품들은 사찰에 봉안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작이 귀속되면 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 측은 입장은 단호하다. 국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러 미술전들이 모두 대상작을 영구귀속하고 있고 국적이 대상작에 3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에 이어 상금액수도 2위에 달할 정도로 조건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에 문화부장관 상을 필두로, 당연직 운영위원에 총무부장 자승, 기획실장 동선 스님이, 위촉직 운영위원에 문화재전문위원 김창균 회장(한국불교미술협회)·최공호 교수(한국전통문화학회)·전통미술공예학과, 이재순 회장(동국불교미술학회), 이태승 교수(영인대 회화학과), 조은정 겸임교수(한남대), 최기영 회장(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황상주 교수(동국대 미술학과) 등이 위촉됐다. (02)2111-1772

김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19회 불미전 대상 박미진의 '열반'.



20회 대상 어수경의 '반야심경'.



달마 상매에 빠진 동성 스님.

동성 스님 달마화비 中 대홍선사서 제막

축구공 든 달마 세간에 주목 인류화합 주제로 세계순회展

축구공을 든 달마로 널리 알려진 동성 스님의 달마도가 중국 사찰에 비석으로 세워졌다. 3월 7일 중국 서안(西安) 대홍선사(장강 계명)에서 제막식을 가진 '동성 스님 달마화비'는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달마 대사의 모습을 담았다. 이날 행사는 송파사 회주 범흥 스님, 중국 대홍선사 방장 계명 스님, 일본 사천왕사 양을 스님, 미국 한국사 회주 고성 스님 등을 증명법사로 진행됐다. 올해로 화업(畫業) 30년을 맞는 동성 스님은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 달마화비 제막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끊임없이 선(禪)과 화두를 그림으로 표현해온 동성 스님은 "이 시대 스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 밖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 세계를 돌며 부처님의 말씀과 선의 깨달음을 달마도에 담아 전시를 해야겠다는 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4월 도쿄 전시회에 선보일 채색 달마도.

빛'을 주제로 지난해 10월 일본 오사카 대한민국 영사관 문화원, 12월 일본 나고야 예술문화센터 전시를 거쳐 4월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내년에는 미국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동성 스님은 '한 송이 연꽃이 되어'라는 전시회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16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1976년 첫 전시회의 주제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이후 20년 간 스님의 그림 작업에 화두가 되었다. 그 화두가 가깝게 여겨진 때가 1996년. 스님이 선택한 새 화두는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였다. 고요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일깨우는 작업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스님은 이 작업이 선정 상매에 드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한다. 2002년 스님은 축구공을 든 달마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작품을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달마가 든 축구공은 바로 진공묘유(眞空妙有)를 뜻하는 것"이라는 스님은 "축구공은 바로 불교의 공사상을 나타낸다고 동시에 연기 법칙도 담겨있다"고 설명한다. (02)395-2585

김지연 기자



중국 대홍선사에 설립된 '동성 스님 달마화비'.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불기2550년 봉축용품 지상기획전

봉축현수막 봉축위원회 지정현수막 • 폭 90cm / 길이 6m (48,000원), 7m (56,000원), 8m (64,000원), 10m (80,000원), 12m (96,000원)

1년	부처님 오신날	13년	부처님 오신날
2년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14년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3년	우리도 부처님같이	15년	연등 접수합니다
4년	연등 접수합니다		
5년	가족을 부처님처럼		
6년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7년	연등 축제		
8년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관형 기타 사이즈, 시안은 전화문의

봉축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봉축버튼세트 ₩40,000원 100개 1세트	봉축리본 세트-일반 ₩25,000원 100개 1세트	모자(성인용) ₩3,000원	모자(아동용) ₩3,000원
장엄 번(만장기) ₩40,000원	봉축카드 ₩600원 200장 이상 무료인쇄		
지하철(장엄)현수막 ₩40,000원			